



정해욱 | (주)도화엔지니어링 전무
(jhok88@dohwa.co.kr)

하천지명 유래 이야기 4

섬진강 (蟾津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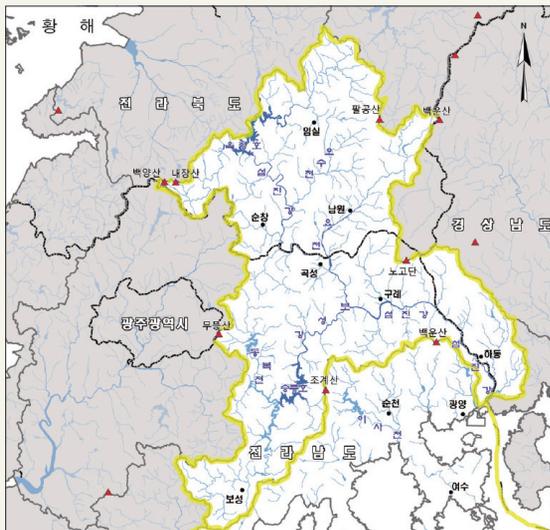
섬진강 蟾津江

섬진강은 '두꺼비 나무강'이라는 뜻으로 두꺼비(蟾)에서 유래되었다.

고려 말 1385년(우왕 11년) 왜구가 이 강 하구로 대거 침입 하였는데, 이 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떼가 나타나 울어 왜 적이 놀라서 물러갔다는 전설이 있다. 그로 인하여 예전에 두 치강이라고 부르던 것을 '두꺼비 섬(蟾)' 자를 써서 섬진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섬진(蟾津)'은 광양시 다압면 도

사리에 조선시대 군사상 요충지라고 하여 별장(別將)이 상주 하는 '섬진(蟾鎭)'을 두었는데 이것이 강이름이 되었다고도 한다. 잔수진(潺水津), 순자강(鶡子江), 압록진(鴨綠津)은 모두 조선시대에 남원·구례·곡성지방에서 부르던 강의 별칭이다. 적성강이라고도 불렀으며, 이 강의 모래가 곱고 아름다워서 모래가람, 모래내, 사천(沙川), 다사강(多沙江) 등으로 불렀다고 한다. 또 다른 이칭으로는 두치강이 있다. 달래강은 전라북도 진안지방에서 부르던 이름으로 보고 있는데, 산골(진안고원)을 흐르는 '내'로 풀이하고 있다. 1458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에는 광양 다사강, 1486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섬진 : 남원부 잔수진이 남쪽으로 흘러 진주 화개현에 이르러 서쪽으로는 용왕연이 되는데 그 동쪽 언덕이 진주 악양현 경계이다. 동남쪽은 바다로 들어갔는데 고려 때에 이 물이 거슬러 흐르는 3대강이다 했다'고 하였다.

「연려실기술」 지리전 고현에는 '섬진강의 근원은 진안의 중대 마이산에서 나와서 합하여 임실의 오원천이 되고 서쪽으로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 운암 가단을 지나서 태인의 운주 산 물과 합하여 순창의 적성진이 되는데 이것을 화연이라고도 한다. 이 물은 또 저탄이 되며 또 동쪽으로 흘러 남원의 연탄이 되며 또 순라진이 된다. 다시 옥과에 이르러 방제천이 되며 곡성에 흘러가 압록진이 되고 구례에 이르러 잔수진과



섬진강



합하였다. 잔수진은 순자강과 합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화개서쪽 경계에 이르러 용왕연이 되는데 여기는 조수가 들어오는 곳이다. 또 광양 남쪽 60리에 이르러 섬진강이 되는데 그 동쪽 언덕은 곧 하동의 악양으로서 동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 때는 이 물이 배류 3대강의 하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진시황이 서북이라는 자를 보내 불로초를 구해도도록 하였는데 섬진강 최상류 하천인 서시천을 거슬러 지리산에 들었으나 구하지 못하고 탐라(제주)로 갔다고 전한다.

섬진강은 영남과 호남지방을 나누는 경계로 예부터 백제와 신라의 접경 지역이었다. 지리산 일대의 유역에는 여러 전설이 전해오며, 옥정호, 매화마을, 하동송림을 비롯하여 섬진강변은 뛰어난 풍치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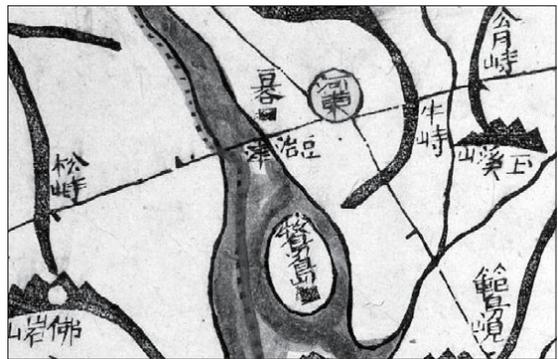
▶ 다사강 多沙江

섬진강을 예전에 강 하류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하류의 하동군이 삼국시대에 다사군(多沙郡)이며, 관내의 악양(岳陽)은 소다사(小多沙)라 하였으므로 강에 고을이름을 붙인 것이다. '다사'는 그자의대로 강 하류에 모래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설과 '물가'를 뜻하는 옛 말이라는 설 등

이 있다.

▶ 두치강 豆治江

공주지방에서 고려 때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차령(車嶺) 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을 중용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공주강이 바로 금강이다. 공주는 곧 곰나루 -웅진(熊津)이며 큰고을 >곰골 > 공주가 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공주의 '공(公)'은 '곰'의 사음(寫音) 표기로 해석한다.



『대동여지도』 (19첩 3면) 두치강(두치진) 일대

▶ 압록강 鴨綠江

전라남도 곡성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압록진(津)이라고도 하였으며 보성강이 섬진강에 합류하는 곳인데 강 언덕에 압록원(院)이 있었다. '압록'은 중국과의 국경하천



인 압록강과도 그 한문표기가 같다. ‘압(鴨)’이 오리를 뜻하므로 고어에서 ‘울’ 계열어로서 알내(아리내-오리내)의 갈래말의 하나로 보고 있다. ‘울’은 사물의 핵심이나 근원, 생명의 탄생과 부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순자강 鶉子江

전라북도 남원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순자진(津)이라고도 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남원)에는 “부 서남쪽 40리에 있으며 곡성현에 들어가 압록진이 된다”라고 하였다. ‘순(鶉)’은 ‘메추라기’를 뜻하는데 지명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해동지도』(전라도)순자강 일대

▶ 용왕연 龍王淵

전라남도 구례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대동여지도』 등의 여러 문헌에 구례와 하동현 경계의 섬진강을 용왕연이라고 표기하였다. ‘용왕’은 옛날 민간에서 수신(水神)으로 좌정하였으므로 이곳이 기우제를 지내거나 관청에서 독제(讀祭)를 지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18첩 4면)용왕연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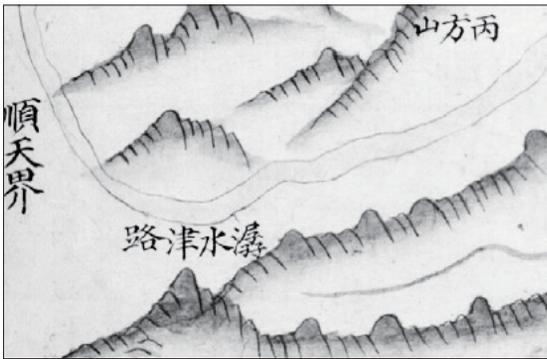
▶ 탄진강 誕津江

전라남도 곡성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여지도서』 등의 문헌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섬진강의 구간명칭이 되는데 옥과현의 옥과천이 섬진강에 합류하는 곳을 탄진

강이라 부르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 **잔수진 潺水津**

전라남도 구례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등 여러 문헌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구례현 남쪽의 섬진강을 잔수진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잔수원(院)과 잔수역(驛)이 있었으나, 지명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광여도』 (구례) 잔수진(잔수진로) 일대

▶ **저탄 猪灘**

전라북도 순창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여러 문헌에 나오는데 “적성진의 하류로

서 고기를 잡는 어랑(魚梁)이 있다”고 하였다. 저탄은 우리말의 ‘돌여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대동여지도』 (18첩 4면) 저탄 일대

▶ **적성강 赤城江**

전라북도 순창지방에서 부르던 명칭의 하나이다. 섬진강 변의 순창군 적성면 이름을 붙였는데, 적성면은 옛적성현(赤城縣)이다. 예로부터 이곳 화산(華山)의 붉은 진달래가 유명하였으므로 적성이라 부른다고 한다. 🌐

